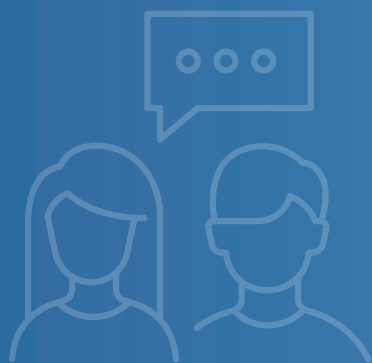


# 일터에 스며든 차별을 기록하다



박효령·왕보경 기자



투데이신문 <남녀편견지사> 취재진이 플로리스트 허정목 씨와의 취재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이는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한 의사가 들어섰다. 환자를 확인한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는 수술 못 한다. 이 소년은 제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의사는 남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익숙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 글 속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의사이자 그 소년의 어머니였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의사’는 남자일 것이라는 너무 익숙해서 의식

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 이런 편향된 인식을 바로 ‘마인드버그(Mindbug)’라고 부른다.

투데이신문 기획연재 기사 <남녀편견지사>는 이 같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명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출발했다. 직업에 성별이 없다는, 당연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명제를 되묻기 위해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평등이 우리 사회에 ‘법’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자 연재를 기획했다.

우리 사회 일부는 ‘보육교사’ 하면

여성을, ‘자동차 정비사’ 하면 남성을 떠올린다. 또 ‘간호사’는 여자, ‘CEO’는 남자라는 편견이 여전히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성별과 직업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선이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 성(性)벽을 넘어선 사람들을 만났다. 남성 보육교사, 여성 정비사, 남성 플로리스트, 여성 소방관 등... 각자의 일터에서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남자가 왜?”, “여자가 어딜?”이라는 편견 섞인 질문부터 받아야 했던 이들이었다. 사회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터는 아직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다. 먼저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김은유(가명) 씨는 고객들의 성희롱적 언행이 ‘일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콜에서 배제되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여성 인테리어 시공업자 권예진 씨도 유사한 차별을 겪고 있었다. “여자가 이런 일을 왜 해?”, “여자가 돈 벌어서 뭐 하게? 시집이나 가지”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했다. 동일한 직업인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 없는 편견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사회가



투데이신문 <남녀편견지사> 취재진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차이나는 양성평등 클래스(시즌2)’에 양성평등 특강을 나간 현장.

변했다지만 현장은 여전히 고정관념이 깊이 남아 있었다.

19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두 회사를 이끄는 ‘커리어 우먼’ 주은영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 만남에서 풍겨 나온 그의 존재감은 어디서든 당당한 CEO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고정관념과 싸워야 했다. 인터뷰에서 주 씨는 “술자리에선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술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여성 CEO로서 ‘약해 보이면 리더십까지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늘 자신을 강하게 다그쳐야만 했다.

여성 자동차 정비사 황신원 씨는 ‘여



투데이션문 <남녀편견지사> 취재진이 CEO 주은영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성이라 남성보다 실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선과 마주하고 있었다. 차량을 능숙하게 정비하며 침착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고객들의 의심은 여전히 뒤따랐다. 그는 그래서 더 당당한 태도로 일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다. 늘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만 인정받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여성 소방관 김민경 씨도 현장 업무에서 자격을 의심받았던 경험을 털어냈다. 일례로 민방위 소방 교육에서 예비군들의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마주했는데, 이에 그는 교육 전부터 완강기 탈출 시범을 먼저 선보여야만 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자격 있는 소방관'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었다.

남성 직업인들도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었다. 남성 간호사 이제원 씨는 "남자는 털 섬세하다"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체력적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남성 보육교사 강진수 씨는 여성 동기들보다 수십 배 많은 지원서를 넣어야 했고 면접에서는 "체육교사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돌보는 건 불안하다"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남성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현호 씨는 뷰티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게이냐"라는 댓글에 시달렸다. 외모를 가꾸며 살아





투데이신문 <남녀편견지사> 취재진이 만난 보육교사 강진수 씨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차별적 공격은 그를 위축시켰다. 남성 플로리스트 허정목 씨도 꽃을 다룬다는 이유로 성적 편견을 수없이 마주했다. 그의 작품은 종종 ‘투박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직면했고, 이를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표정 너머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만난 9명의 취재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뚜렷하게 갈리는 직업 현장에서 여전히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견고하게 남아 있음을 증언했다. 각각 겪은 편견의 형태는 달랐지만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다.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남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다. 그림에도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담아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 누군가가 성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기를. 심장이 뛰는 일을 선택하는데 성별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사 연재에 그치지 않았다. <남녀편견지사>의 취재 내용을 담은 강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강연 중 한 중년 여성 수강자는 말했다. “우리 세대는 ‘여성’이라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이 적고 기회가 제한된 직업을 선택했는데...



투데이신문 <남녀편견지사> 취재진이 만난 자동차정비사 황신원 씨가 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그런 직업에서도 남성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쉽게 반응할 수 없었다. 그 말속엔 억울함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단지 성별 때문에 제한된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했고 그 무게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조차 또 다른 ‘균형’의 이름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 그에게는 또 다른 상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평등을 향한 출발선과 기억은 세대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상이 제아무

리 바뀌었다고 해도, 또 각종 통계가 양성평등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날 들었던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양성평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 삶의 궤적을 함께 돌아봐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절감했다.

그 뒤로는 ‘누가 더 차별 받았는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차별은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고 변화는 늘 한발 늦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뎠던 시선을 환기하는 일, 그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다. 📢

투데이신문 박효령 · 왕보경 기자